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근거로 한 욕실의 유형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박영순
연구원 신인호, 한정원, 이현정

1. 연구의 목적

사회가 점차 발달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삶의 여유와 생활의 질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순한 생리 위생공간이었던 욕실에 대한 개념이 점차 바뀌어 욕실은 청결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휴식을 취하여 생활의 활력을 주는 생활 재충전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이후 서양의 문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서양의 욕실 형태가 그대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우리의 전통 주택 내부에는 없었던 세면, 입욕의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고, 변소공간도 내부로 들어와 세면, 입욕, 용변의 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형태로 변화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실의 형태는 우리의 문화와는 이질적이며, 생활습관과도 맞지 않는 면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현재 욕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욕실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욕실의 기능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욕실 공간의 연구를 통하여 욕실은 단순히 청결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욕실, 쾌적한 욕실, 편리한 욕실, 건강한 욕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에 적합한 욕실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욕실의 개념과 한국인의 목욕습관

욕실은 세면실, 화장실, 목욕실을 함께 이르는 말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인 동시에 건강과 휴식, 안정을 위한 공간이다.

우리나라에 서구식 욕실이 처음 보급된 것은 1964년 주택공사가 지은 마포 아파트의 욕실이었으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한국인의 독특한 목욕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서구식 욕실만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독특한 목욕 습관 중의 하나는 주택 내에 욕실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탕에 가야 목욕을 한 것 같다'는 심리적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대중탕 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이다. 또한 입식 위주의 욕실공간 내에서도 여전히 대야나 바지를 이용해 욕실바닥에서 목욕을 하는 좌식의 위생행위를 행하고 있으며, 특히 머리 감기와 발씻기 등의 행위를 욕조 밖에서 하는 특성이 있다.

3. 현재 욕실의 문제점과 대안

현재 욕실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욕실의 이용실태와 관련된 것으로 샤워나 머리감기, 발씻기 등의 행위가 욕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대야나 바지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실 이용 실태를 욕실 설계에도 반영하여 바닥마감제는 젖어도 무방한 방수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하고, 욕실을 세탁공간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므로 시스템 세탁수납장 등을 이용하여 욕실 입구 부분에 세탁과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욕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욕실의 기본기능인 세면, 용변, 목욕을 위한 공간이 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욕실에서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겹치는 등의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용자는 분리형의 평면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탈의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에 따라 욕실을 두 공간 또는 세 공간으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별

도의 탈의실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셋째, 욕실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이 단순한 생리위생공간에서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택의 개조 성향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욕실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욕실 설계시에는 희망하는 경우, 건강을 위한 헬스룸이나 사우나실 등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서, 욕실은 항상 젖어 있는데 비해 바닥의 마감재료는 타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욕실의 마감재는 탄력성 있는 재료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선택해야 하고, 갑작스런 온도차이에 의한 쇼크를 피하기 위해 욕실에도 변기 등에 온열 설비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는 환경과 자원절약의 문제로서 욕실의 설계자와 사용자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욕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공간에 적용시켜야 한다.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여 물을 절약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켜 정원이나 외부 공간 청소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조명과 기계식 환기는 에너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자연조명과 환기를 위한 창문의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욕실설계지침

한국인의 독특한 목욕습관과 욕실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토대로 실제 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지침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욕실의 크기는 가족의 생활 주기나 생활양식 등을 고려해야 하고 내부공간의 설비나 추구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입욕을 원하는 사람들은 욕조를 꼭 설치해야 하겠으나 집에서는 간단히 샤워만 하는 사람은 욕조 없이 샤워 부스만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목욕과 세탁을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탁공간을 욕실과 연결해 설치해 줌으로써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건강과 휴식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헬스룸이나 사우나를 설치하여 욕실을 크

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손님용의 욕실에는 변기와 세면대만을 설치해 적은 면적으로 사용을 원활히 할 수도 있다.

· 욕실 내부 공간은 사용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추세는 대부분 분리형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욕실에서 화장실을 분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욕조와 세면대는 한 공간에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별도의 수세기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해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욕실에는 때를 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욕조밖에 별도의 수전을 설치하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세발기와 발을 닦기 위한 세족기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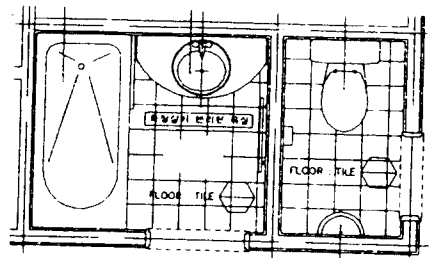
· 욕실의 설비 부분에서는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노인이나 어린이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적합하다.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온열 설비가 되어 있는 변기나 온수 세정용 변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조명과 환기를 위해 되도록 창을 설치한다.

5. 욕실의 유형

한국인의 목욕 습관과 현재 욕실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욕실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욕실의 유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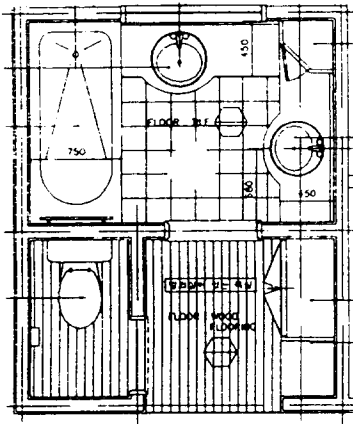
· 화장실이 분리된 욕실

현재의 통합된 욕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가 함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일반적인 욕실과 동일한 면적에서 화장실만을 분리하여 동시에 두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을 높인다. 또한 화장실이 분리됨으로 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화장실은 타일 외의 바닥재를 사용하고, 독서대를 설치하여 보다 다양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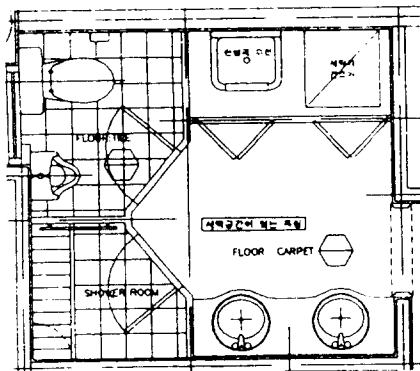
· 탈의실이 있는 욕실

하나의 공간에 모든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실이 욕조와 세면대가 있는 목욕실, 변기와 수세기가 있는 화장실, 현재 욕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탈의실의 세공간으로 분리된다. 목욕실 내부에는 다용도 BOWL을 설치하여 발씻기, 간단한 손빨래, 아기목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탈의실에는 붙박이 수납 옷장을 설치한다. 또한 외부에 면한 창을 두어 실내가 밝고 환기를 돕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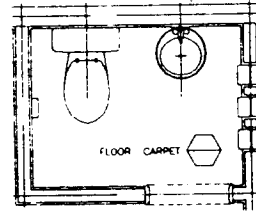
· 세탁공간이 있는 욕실

욕실 내부 또는 욕실과 연결된 공간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두어, 탈의할 때 생기는 옷들을 그 자리에서 세탁 건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욕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이외에도 소변기를 설비하여 남성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 세면대는 쌍볼 세면기를 사용하여 아이와 아빠가, 혹은 부부가 함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유형의 욕실에서는 샤워부스만이 바닥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공간 -화장실, 세면 공간, 세탁공간은 타공간과 바닥차가 없으므로 접근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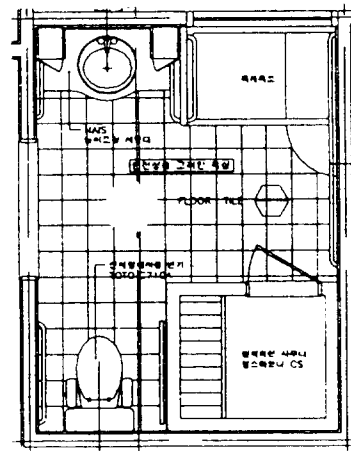
· 손님을 위한 화장실

하나의 주택 내에서도 용도에 따라 다른 용도의 욕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외부인이 온 가족의 칫솔과 아이의 목욕 놀이감 등이 있는 욕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거나 손을 씻는 것은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상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손님을 위한 욕실을 제공한다면, 가족들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넓지 않은 공간을 할애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안전을 고려한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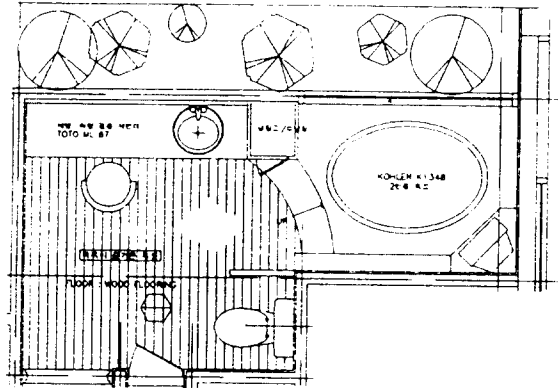
한 가족 중에는 노인이나 장애자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한 욕실이 주택 내에 필요하다. 이 유형의 욕실에서는 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곳곳에 지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고, 세면대는 사용자의 키에 맞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욕조는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며 치료 요법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비한다.



· 목욕이 즐거운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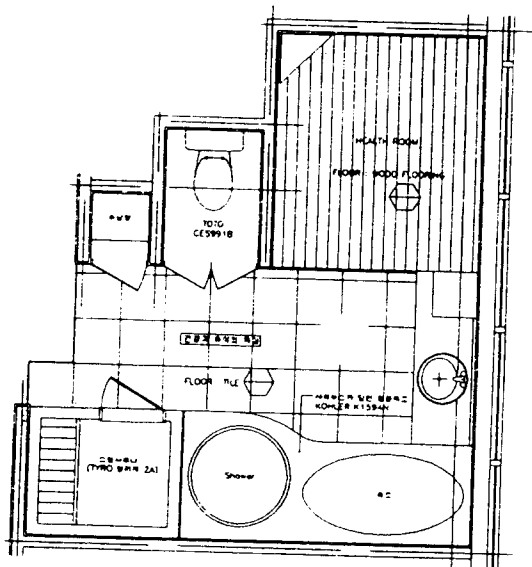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목욕을 즐길 수 있으면서 아침에는 빠르게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는 욕실로서, 욕실 안에는 2인용 욕조와 간단한 바를 설치하여 하루

의 피로를 느긋한 분위기에서 풀 수 있게 한다. 또한 욕조 밖에서 샤워를 이용하거나 세면대를 이용해 머리를 감는 사람들을 위해 bowl이 크고 핸드 샤워가 부착된 세면대를 설치한다. 또한 바쁜 출근 시간에 몸단장이나 화장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부착된 수납 겸용의 화장대를 갖춘다.



· 건강과 휴식의 욕실

생활이 여유로와 지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욕실에 대한 요구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요구는 욕실이 피로 회복 및 건강증진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하여 이 유형의 욕실에서는 TV나 비디오를 보며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헬스룸과 땀을 흘리게 하여 피로 회복을 돕는 스팀 사우나를 설비한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목욕 습관과 현재 욕실의 문제점, 욕실 설계의 지침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근거로 한 욕실의 유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미래의 욕실은 한국인의 독특한 목욕 습관을 적절히 반영하고 보다 발전된 설비들을 갖춘 욕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욕실에 AV기를 설치한다든가 Home Automation 설비를 구비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며, 건조까지 되는 샤워부스를 개발하고 인체 모양에 따라 바닥이 변하는 욕조를 계획해 보는 것도 욕실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사용자 자신의 생활양식에 가장 알맞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건강한, 그리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욕실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